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복귀와 향후 정국 전망

(2002. 4. 15)

국별조사실

□ 차베스 대통령 복귀

- 지난 12일(현지시간) 새벽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틀만인 14일 새벽 대통령직에 복귀함.
- 노조 총파업과 차베스 퇴진 요구 시위가 유혈사태로 이어지고 일부 군부가 이에 가담함으로써 권좌에서 밀려났던 차베스 대통령은 과도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대규모 차베스 지지시위와 군부내 차베스 지지세력의 반발 등으로 페드로 카르모나 과도정부 수반이 이틀만에 사퇴함으로써 다시 권좌에 복귀하게 된 것임.
- 차베스 대통령의 복귀로 9일 노조 총파업 이후 급박하게 전개됐던 베네수엘라의 정정 불안은 일단 진정될 계기를 맞게 됐으나, 쿠데타 연루자 처리 및 차베스의 급진 개혁정책에 반감을 지닌 반대세력 무마 등 과제가 산적한 상태여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됨.

□ 차베스 대통령 복귀까지의 베네수엘라 정국 동향

- 지난 9일 시작된 노조 총파업이 차베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유혈시위로 발전되고 일부 군부가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한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 사태는 12일 페드로 카르모나 상공인연합회(FEDECAMARA) 회장이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면서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음.
- 그러나 13일 전국에서 20만 명의 차베스 지지자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고 군부의 親차베스 세력이 과도정부에 반기를 들자 베네수엘라 정국은 또 다시 극도의 혼란 상태를 보임.
- 과도정부는 의회 해산, 개혁입법 폐지 등의 조치를 통해 체제 안정을 시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의회가 반발하고 총파업을 주도했던 노조연맹(CVT)마저도 과도정부에 등을 돌리자 카르모나 임시 대통령이 사임하였고, 차베스 정권의 부통령인 카베요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함.

- 카리브해의 오르칠라 섬으로 유폐됐던 차베스 대통령은 14일 새벽 헬리콥터편으로 카르카스로 돌아와 TV로 생중계 된 재취임 행사를 통해 카베요 부통령으로부터 정식으로 대통령직을 인수함으로써 축출된 지 이틀만에 다시 권좌에 복귀함.

□ 향후 정국 전망

- 차베스 대통령의 축출과 이틀만의 복귀는 베네수엘라의 민심과 군부 여론이 차베스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분명한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이번 사태의 처리과정과 정국운영 방식에 따라 심각한 국론분열 및 정국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차베스 대통령이 권력을 되찾도록 도와준 지지세력인 서민계층의 옹호를 위해서는 그 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사회주의적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 때문에 소원해진 군부, 교회, 산업계, 노동계 등 주류 세력과의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차베스 대통령은 재취임 후 연설에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과도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지지를 표시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향후 베네수엘라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 하락과 OPEC 쿼터 축소로 국가경제의 중추인 석유산업이 계속 부진을 보일 경우 국민경제 악화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 고조로 새로운 정치·사회적 갈등 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문의처 김영석 ☎ 3779-6653 claudio@koreaexim.go.kr

최성규 ☎ 3779-6665 ppio93@koreaexim.go.kr